광주와 뜻 깊은 '인권 동행'…인권·민주주의 고마움 깨달아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인권운동 활성화 기폭제 역할

'광주정신' 전 세계 전파하는데 국가차원 지원 필요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세계인권도시포럼이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17일 폐막했다. 이 포럼은 국가폭력에 항거해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작성한 광주에서 세계인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 올 포럼에 참석한 인권 전문가들의 눈을 통해 세계인권도시포럼과 광주를 들여다봤다.

◀지난 14일 세계인권도시포럼 개막일에 열린 오프닝라운드테이블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스페인 마드리드시 마우리시오 발리엔테 등 세계인권도시 시장과 인권 전문가들이 마드리드 인권행동 계획 사례, 자유와 독립을 향한 팔레스타인의 권리, 필리핀 도시 인권상황에 관찰, 아시아 인권헌장의 평화권, 평화로운 인권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의 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마갈리 프리코우뎃 UCLG-CISDP 사무국장

아픈 역사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과거 배워야

마갈리 프리코우뎃 세계지방정부연합 산하 사회통합 참여민주주의 인권위원회(UCLG-CISDP) 사무국장은 광주포럼이 향후 인권도시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냈다.

마갈리 사무국장은 "불과 몇 년 전 만해도 한국은 경제성장을 이룬 경제부국인 반면 인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광주포럼을 통해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시민은 물론 전 세계 인권 전문가와 5·18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는데 나치정권을 겪은 독일 뉘른베르크와 프랑코 독재정권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던 스페인 마드리드 등 도시들은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현 세대는 아픈 역사가 다시 재발하지 않고 인권의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과거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포럼은 시민과 도시시장, 학계의 경험을 나누는 국제 인권 아고라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특히"광주포럼은 사회정의와 자유를 기반으로 인권 수호와 이행을 위한 세계도시들과 시민들의 헌신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마갈리 사무국장은 "올해 주제가 '평화'였는데 내년에는 농촌지역과 관련된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새로운 형태의 시민권, 사회적 다양성, 부의 재분배, 강제이주 반대 등 '도시권'(the rights to the city)에 초점을 맞췄으면 한다"고 말했다.

바실 페르난도 전 아시아인권위원장

지자체 이름 붙여 '광주정신' 명사 사용 유일

바실 페르난도 전 아시아인권위원장은 먼저 윤장현 시장을 세계 인권도시를 이끌 '철학적 지도자'로 평가했다.

인권운동을 하며 윤 시장과 15년 간 인연을 맺어왔다는 바실 전 위원장은 "정치인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데, 윤장현 시장은 인권에 온 정신을 쏟을 정도로 열심이었다"며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는 그는 세계 인권도시를 이끌만한 '철학적 지도자'와 같은 존재"라고 강조했다.

2001년 광주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한 그는 "인권상 수상 차 광주를 처음 방문했을 때 5·18 묘역을 갔다"며 "당시 광주시민들이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겪었던 역경과 고난, 더 밝은 미래를 위해 희생한 숭고한 정신 등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랑스 등이 인권 선진국 대열에 오르기까지 100~200년이 걸렸던 것을 감안하면 광주는 불과 몇십년 만에 같은 대열에 올랐다"며 "광주시민들은 광주의 역사를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스로 인권도시라고 선언하고 광주정신을 널리 알린 것은 광주 만의 독특한 아이디어이자 세계인이 배워야 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바실 전 위원장은 "지자체의 이름을 붙여 '광주정신'이라는 명사를 사용하는 곳도 광주가 유일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과제로는 "폭력적이고 억압하며 반인권적인 정부가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광주포럼은 전 세계에 광주정신을 알리고 주변 국가에 전파하는 방식으로 국가차원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우리시오 발리엔테 스페인 마드리드시 부시장

광주-마드리드 참여민주주의 방식 논의를

마우리시오 발리엔테 스페인 마드리드시 부시장은 "윤장현 광주시장이 '디사이드 마드리드' 플랫폼에 대해 관심을 보여줘 감사하다"며 "향후 광주와 관련 MOU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우리시오 부시장은 "지난 3월 마드리드에서는 평화포럼이 열렸었는데 광주포럼과 여러 측면에서 비교하고 살펴볼 수 있어 좋았다"며 "특히 5·18 당시 역사적 상황과 광주시민들의 저항 등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디사이드 마드리드'는 스페인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예산 투표권'(presupuestos participativos)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예산 투표권은 인터넷으로 주민들이 국가 예산이 사용이 됐으면 하는 부분에 투표를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면 도로 개선, 주거시설과 관련한 경제적 도움, 자연환경 조성 등 여러 부문 중 개선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투표, 예산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며 "광주시에서 MOU 협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므로 향후 좋은 발전을 이어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마우리시오 부시장은 "먼저 마드리드시의 참여민주주의 정책에 대해 광주에서 접목하고자 하는 내용과 방식에 대해 알려주면 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 같다"며 "차후 만남을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무기얀토 인도네시아 국제NGO포럼 상임위원

5·18민주화운동의 기억, 인권 영감 자극

무기얀토 인도네시아 국제NGO포럼 상임위원은 광주와의 '인권 동행'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광주시가 민주화운동 기억들을 보존해 현 세대들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고마움을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준다"며 "광주포럼을 통해 인권 증진과 보호가 어떻게 경제 발전과 공존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고 전했다.

또 "광주는 세계가 인정한 국제인권 기준과 실천을 근거로 한 인권도시 선언 및 원칙이 있는 유일한 곳이다"며 "인도네시아는 인권도시 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준으로 광주의 인권정책을 가장 먼저 인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노소보, 보조 네고로, 람풍 티무르 등 도시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인권도시 시장단은 매년 선정되는 광주포럼의 주제와 광주시 인권정책에 영감을 받아 자국 인권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워노소보는 지난 해 광주포럼을 벤치마킹, 인권정책 TF팀을 꾸리고 인권포럼을 개최했다. 더불어 인권포럼에 광주시를 초청, 인권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수실 파퀴렐 네팔 전 국가인권위원장

亞국가 참여 이끄는 '인권 리더' 역할 기대

수실 파퀴렐 네팔 전 국가인권위원장은 "5·18민주화운동 등을 통해 '아시아 인권리더'로 우뚝 서게 된 광주가 서구권 주도로 흐르고 있는 인권문제를 아시아 중심으로 끌어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실 전 위원장은 "1980년 네팔은 권력을 얻기 위해 총을 들었지만, 광주는 평화를 위해 총을 선택했다"며 "민주화를 이룬 대부분 나라들이 결과물만 갖고 있는 반면 광주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 과거를 통해 배우고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을 통해 민주화를 이룬 광주야말로 세계 인권도시의 '인권 리더'라 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인권과 관련된 모든 이슈가 서구권에서 쥐고 있었다면 이제는 광주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광주포럼은 아시아국가들이 인권문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하고 이끄는 리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다음 포럼부터는 다양한 나라 정치인들을 초청해 그들이 직접 '광주포럼'을 배우고 자신의 나라 이슈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지혜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효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다문화·외국인 의견, 정책으로 연결해야

세계인권도시포럼이 광주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2011년부터 7년째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김동효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다문화·외국인 의견을 광주시 정책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세계 인권도시들과 함께 인권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열려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번 포럼은 대부분 행사가 실내에서 개최됐는데 올해는 시청사 야외광장에서 환영행사가 열리면서 소통의 장이 더욱 활짝 열렸다"며 "인도, 스웨덴, 네팔 등 다양한 국가의 인권 전문가와 인권 정책을 소통·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또 "다문화, 외국인 등의 의견이 광주시 정책으로 많이 연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포럼도 딱딱한 프로그램보다는 자유스럽게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진다면 더욱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